



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12



#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수원



9월 28일 (토) 14:00

Next Home Match

광주 vs 경찰 10월 6일 (일) 14:00



[www.gwangjufc.com](http://www.gwangjufc.com)



@GWANGJU\_FC



/gwangjufc



/gjfc0

## Photo Gallery

2013/09/23 (월) 19:00 충주전



# Data

##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경찰 축구단	25	55	17	4	4
2	상주상무피닉스	25	50	14	8	3
3	광주FC	25	35	10	5	10
4	FC안양	25	33	9	6	10
5	수원FC	25	32	8	8	9
6	고양FC	25	32	8	8	9
7	부천FC	25	25	6	7	12
8	충주함벨	25	13	3	4	18

##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26	수원	3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01	광주	1 - 0	부천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08	고양	5 - 1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15	광주	1 - 2	안양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9/23	충주	0 - 1	광주

##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루시오	10	25	0.40
2	김은선	4	20	0.20
3	김호남	4	21	0.19

##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루시오	7	25	0.28
2	김호남	5	21	0.24
3	박현	2	16	0.13

##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08(수)	19:00	광주	충주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

\*FA CUP 경기

중흥S-클래스	행복의 농장도시 <b>광주</b>	KJB <b>광주은행</b>
Joma	우미건설	조선대학교 병원
GS&POINT	봉황축하기엔 주식회사 <b>그래미</b>	사랑행복 그리고 공동 <b>롯데시네마</b> 수원 · 광주
ALPASKA <b>광주월드컵점</b>	<b>백운안과21</b>	HKB <b>정연의료재단</b>
SFB <b>사랑방 신문</b> SFB Challenge Square	TS <b>교통안전공단</b>	G2N <b>지리산산상</b>
모아레포츠타운(주)	<b>광주수안병원</b>	광주광역시교육청 K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b>헤모수 휘트니스 클럽</b>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Jungheung Gold spa resort	<b>광남일보</b>
수원/영광/영동/영서/영남 <b>월드</b> 수원지구 <b>월드4거리</b>	民俗村 <b>민속촌</b>	<b>무진주</b>



# Review

## 확실한 골잡이가 있었던 광주



1-0이라는 결과는 루시오가 있는 광주와 그런 골잡이가 없는 충주의 차이였다. 광주FC가 23일 저녁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5라운드 충주함멜과의 경기서 루시오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충주 원정에서 거둔 감격적인 첫 승리였다.

전반전 시작부터 강력한 압박을 들고 나온 충주에 시달린 광주는 좀처럼 온전한 볼 소유를 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중원의 핵' 김은선마저 부상으로 조기 교체아웃 돼 미드필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광주에게 행운이 따랐다. 전반 28분 강주호의 슈팅과 31분 임종욱의 헤딩 슈트 모두 광주의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며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에서 광주는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34분 골키퍼 김지성이 전방으로 길게 내친 볼이 충주 수비수의 머리에 맞고 흘러나왔다. 이것을 루시오가 중앙선 바로 아래 정면에서 잡고 상대 PK 박스 정면 바로 코앞까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낮게 깔리는 원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가른 것.

후반전에 광주는 훨씬 나아진 경기력을 선보였다. 후반 21분 루시오의 패스를 받은 김호남이 문전 중앙에서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충주의 골대를 때리고 나왔다. 후반 24분에도 충주 진영 문전 근처에서 얻은 직접프리킥 찬스서 키커로 나선 박희성의 절묘한 원발 슈팅마저 충주의 크로스바를 또 한 차례 때리는 등 찬스의 질에서 상대보다 앞섰다. 이후 남은 20여분 동안 광주는 적절한 공-수 균형을 통해 실점 없이 1골 차 승리를 거머쥐었다.

# Preview

## 광주, 간만에 2연승 거둘 수 있을까?



지난 월요일 충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근 2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광주가 여세를 몰아 간만에 2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 남기일 감독대행이 지휘하는 광주FC가 오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 26 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이미 올 시즌 세 번 맞붙어 1승 2패로 상대전적에서 열세에 놓인 광주로선 반드시 승리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충주전에서 부상으로 이른 시간에 교체아웃 된 '만능 미드필더' 김은선의 수원전 출장 여부가 불투명 한 것이 적잖이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여름-정경호-이광진이 중원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뛰어주는 수밖에 없다. 양 측면에서는 김호남과 김준엽이 충주를 상대로 몇 경기 만에 다시 제 포지션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다만 8월 중순 이후로 다소 무뎠던 인상을 주는 슈팅 감각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루시오는 팀이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 방'을 꽂아 넣어주는 선수라는 것을 항시 증명하고 있기에 팀 동료들과 팬들의 신뢰가 두텁다. 그럼에도 이번 수원전 승패의 관건은 역시나 수비 조직력이다. 한 달 전 수원 원정에서의 패배도 그렇고 고양 원정에서의 악몽도 마찬가지로 전반 20분대까지 실점 없이 버텨낼 수 있는 4백라인의 집중력과 2선의 적극적인 협력수비가 현재의 광주에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Focus

## 수원FC - 국내파들 중심의 매서운 공격축구



수원FC와 고양 HIFC 모두 리그 후반기 돌풍을 몰고 오며 광주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골잡이 두 명이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고양보다 순수 국내파 공격수들의 잘 짜인 조직력이 전력의 핵심인 수원의 저력이 더 무섭게 느껴진다. 압도적인 제공권 덕에 어느 팀을 가도 주전이 확실히 되는 스트라이커 보그단이 이제는 그저 팀 내 공격 옵션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정도.

현재의 수원은 박종찬-임성택-김본광의 3각편대가 팀 득점을 이상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김한원이 결정적인 순간 팀의 활로를 뚫어준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유수현이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받쳐주고 있다. 다만 김한원이 경고누적으로 이번 광주전에 출장할 수 없어 전력에 차질이 생겼다. 더불어 1선과 2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험거운 보이는 수비라인도 시즌 내내 조적제 감독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수원 박종찬

### 리그 최고 수준의 문전 감각

내셔널리그 시절부터 맹위를 떨쳤던 득점 감각이 K리그 챌린지에서도 빛나고 있다. 상대 문전에서의 정확한 위치 선정과 반 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 여름 - 여름은 물론 가을에도 강한 남자



축구팬들이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광주의 미드필더 여름(24)은 그 이름 그대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했고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에도 그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이미 중원에서는 핵심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왕성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볼 줄기를 잘라내는데 일가견이 있고 미드필더로서 신체조건과 파워가 떨어지는 불리함을 정확한 예측능력과 한 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커버하고 있다. 시즌 초-중반까지는 확실히 수비에 치중하면서 양 측면으로 볼을 배급하는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남기일 감독대행 체제 출범 이후엔 보다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상대 수비라인의 허를 찌른다.

지난 안양과의 홈경기 선취골 장면에서 보듯 상대 골키퍼와 일대 일로 맞선 다급한 상황에서도 몸을 띄우며 절묘한 로빙슛으로 연결할 정도로 문전에서의 침착성도 갖추고 있음이 증명됐다. 김은선에 이어 만약 여름마저 미드필더로서 '골 맛'을 알아간다면 광주로선 올 시즌 남은 10 경기의 전망이 더욱 밝아지게 된다.